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8 년 12 월 7 일

요한복음 17 장의 기도

이 예수아의 대체사장적 기도는 중보 기도의 표본이요 계시의 보고(寶庫)입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복음 17 장에 나오는 예수아의 기도가 교회의 연합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도의 의미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요한복음 17 장에서 우리가 그 분 안에서 “하나” 된다는 표현이 5 번 나오는 반면, 예수아의 영광이나 우리가 그 분 안에서 영화(榮化)된다는 표현은 8 번이 나옵니다. 이 기도는 교회의 연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교회의 영화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 장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한다면, 전세계적 중보에 돌과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적 메시아의 몸이 영광과 사명, 성결로 나아오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됨을 뜻하는 영단어 union 과 unity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아께서 제일로 의도하신 바는 우리가 당신과, 아버지와 “하나”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union)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 분명히, 서로 하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합(union)이 우리 서로 간의 하나됨(unity)보다 앞섭니다/

우리가 전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되는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엄청나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그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리라고 기록합니다 (벧후 1:4).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길 기도했습니다 (엡 3:20).

요한복음 17 장은 우리가 대위임을 완수하여 전세계가 예수아의 주 되심을 알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요 17:21, 23).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리니 두 계명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막 12, 눅 10). 계시록과 에베소서에서 묘사된 대로 우리가 메시아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계시록 1 장에 나타난 그분의 영광된 형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임재에 동반됩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마치 불의 강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단 7:10). 또 마치 핵과 같은 세기의 거대한 회오리입니다 (겔 1). 제자들에게는 변화산에서 보여졌습니다 (눅 9, 마 17). 그들은 오순절 아침에 그 영광의 “혀들”을 일부 체험했습니다 (행 2).

예수아께서는 세상이 지어지기 전 아버지와 그 영광을 나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 17:5). 이 영광은 창세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을 창조한

능력입니다. 거대한 천체와 같고, 뒤집힌 블랙홀 (우주를 삼키는 것이 아닌 뱉어내는) 같은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에너지가 질량과 광속의 제곱의 곱과 같음 ($E = MC^2$)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피조물의 질량을 이 공식에 따라 곱셈하면, 우주를 짓는 데에 들었던 순수 에너지의 총량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기도제목

카삼 -

올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레기아 Regiah (서로 공격하지 않는 평온의 기간)”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올 11 월에만 215 발의 카삼 로케트가 가자에서 발포되어 이스라엘에 떨어졌습니다! (하마스와의 평화 협약 맺기는 너무나 어렵죠.)

헤브론 -

목요일 오후 2시 반, 이스라엘 특별 경찰대가 헤브론의 “평화”의 집을 급습해 모든 유대 정착민들을 대피시키고 문들을 용접해 폐쇄시켰습니다. 작전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고, 폭력 충돌이 있으리라는 예견에도 불구하고 36(!)분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의 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에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킬 것으로,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도 심지어 메시아닉 성도들 사이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헤브론에서 그간 일어난 사건들의 요약입니다.

1967년 6월 - 6일 전쟁의 여파로 이스라엘이 헤브론을 장악

1968년 4월 - 종교적 정착민들이 도착하여 유월절을 기념하고 유대 공동체를 시작

1968년 10월 -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막벨라 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곳)에서 기도하는 유대 정착민들 한가운데에 수류탄을 던짐. 47명 부상

1980년 5월 - 테러리스트들이 기도하러 오는 유대인 무리에 발포. 6명 사망

1988년 9월 - 레빙거 Levinger 랍비가 헤브론 중심의 팔레스타인 무리들에게 발포. 1명 사망. 레빙거는 이스라엘 법정에서 유죄 판결.

1994년 2월 - 바룩 골드스타인 Baruch Goldstein 박사가 자동소총을 들고 막벨라 굴에 들어가 기도 중이던 팔레스타인 무슬림 29명을 사살.

2001년 3월 - 유대인 아기 샬헤벳 파스 Shalhevet Pas 가 테러리스트 저격수에게 살해

2002년 11월 - 잠복 테러리스트가 11명의 이스라엘 군인, 경찰, 민간인 살해

2007년 3월 - 수백의 유대인 정착민들이 헤브론 팔레스타인 국경에 있는 “평화”의 집을 점령

샌드라 Sandra -

지난 주, 인도의 아동 사역자 샌드라 사무엘 Sandra Samuel 이 두 살 박이 모이세 홀쯔버그 Moische Holtzberg 를, 아이의 부모를 살해한 테러리스트들의 손에서 구출했습니다. 이번 주, 그녀는 장례식을 위해 이스라엘에 도착했고, 모이세와 머무르는 것이 자신의 있을 곳이에요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샌드라는 한 이스라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카톨릭 기독교인이고, 제게 유대인 가정과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선물입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고, 어떻게 유대 민족인 선민인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누구든 유대인들을 도우면 특별한 축복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르카트 Barkat -

새 예루살렘 시장 니르 바르카트는 이스라엘 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세속적”인 사람이지만, 할아버지는 당시 루바비치 Lubavitch 파의 최고 랍비였다고 말했습니다. 루바비치 레비 Lubavitch Rebbe 는 다윗 왕의 직계 자손이라 주장한 바알 쎬 토브 레비 Baal Shem Tov Rebbe 의 직계 자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르카트는 자신이 다윗 왕의 직계 자손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이 “다윗 왕의 행적을 따른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